

연구논문발표(2)

종교개혁적 합리성의 새로운 지평

Francis A. Schaeffer의 「이성에서의 도피」에 대한 평가와 논쟁점¹⁾

김창범(기독신대원, M.Div. 과정)

1. 들어가는 말

1898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연했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현대주의」라는 서구문화의 망령에 대해 경고하면서 기독교 진리를 체현 시킨 종교개혁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과감히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 카이퍼는 약 반세기후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에 의해 발견된 논제들에 대해 이미 예언자적인 통찰로 언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카이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주의의 세력은 누그러질 줄 모르고 오히려 유럽의 정신은 물론 미국의 건국정신과 청교도적 복음주의 사상의 기초까지 부패시켜 왔다.¹⁾

쉐퍼는 20세기 말 기독교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를 나름대로 밝히려고 노력했으며, 그러한 노력의 성과는 복음주의의 개혁이라는 커다란 명제와 시대적 절망에 대처하는 성경적 세계관의 건설이라는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쉐퍼는 그의 23권의 저작물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흐르는 몇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2가지의 중심 논점은 이러하다.

첫째는 종교개혁적 기독교 진리가 회복되어 기독교적 국가와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둘째는 현대의 복음주의는 적용과 타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²⁾

쉐퍼가 실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서, 서구의 기독교와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위반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쉐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 진단과 처방이 바로

그의 초기 저작물인 “이성에서의 도피”(Escape From Reason, 1968)에 잘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쉐퍼의 3대 저서라고 일컬어지는 The God Who Is There (1968),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1972)와 함께, 그의 사상의 맥락을 가늠케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책에서 주장되는 쉐퍼의 논리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또 일관되게 그의 모든 생각과 저술과 활동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2. 쉐퍼의 생애와 활동

쉐퍼의 생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표에 따라 순종된 삶이었다. 그의 생애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생애의 전반기(1912-1955)는 미국에서의 삶으로서 성장과 배움의 삶이며 평범한 목회자로서의 준비의 시기였다. 그는 1912년 펜실베니아의 한 독일계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나 신앙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17살 때였다.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불꽃같은 생애를 살았다. 그의 신학의 꿈은 부인 ‘에디스 쉐퍼’를 만난 후 실현되었고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그레셤 메이첸’ 교수의 영향으로 절대적 성경 무오성을 기초한 사상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학업 중도에 전학한 페이스 신학교를 졸업 후 26살에 미국 성경장로교단의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여 10년간 필라델피아 지역 목회에 전념하였다.

두 번째 시기인 생애의 후반기(1955-1984)는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한 시기였다. 1947년 장로교 해외선교부 독립 이사회 대표로서 세계 2차대전 후의 유럽 교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약 3개월간 유럽 순회 여행을 떠났다. 여행 후 쉐퍼는 갑자기 스위

스 이주를 결단하고, 라브리(L'Abri : 오두막, 피난처)라는 공동체를 창설한다. 이 계획은 그의 생애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복음주의 개혁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는 유럽 여행 중에 “역사적 기독교와 가시적 교회의 순결성을 변호하고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회상했다.³⁾

쉐퍼는 유럽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위기에 봉착해 있음을 실감하면서, 기독교 목회자로서 자기 반성의 계기를 만났던 것이다. 라브리에서의 그의 사역은 절대적 진리를 위한 투쟁의 삶이었다. 쉐퍼의 라브리에 대한 관심영역은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얘기할 수 있다. 첫째 신앙의 합리성 추구, 둘째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 변증, 셋째 악의 문제와 대결, 넷째 바른 영성의 확립, 다섯째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 여섯째 사회적 책임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⁴⁾

쉐퍼는 그의 저서 「진정한 영적 생활」(True Spirituality, 1981)에서 라브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브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삶과 일속에서 증거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를 기초로 살기로 한 것이다.”⁵⁾

쉐퍼는 결국 철저한 성경 무오 사상 위에 개혁적 복음주의 신학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관심은 개인의 영적 구원과 함께 낙태, 안락사, 환경오염 문제 등 사회 개혁적 차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미쳤다. 특히 그는 복음주의가 지적영역에 대해 소홀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문주의자 및 자유주의자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시도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대학을 중심한 교수, 학생 등 지식인층을 향한 논리적 전도방법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때로는 모렬적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쉐퍼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들 프랭키와 함께 서구 기독교 사회가 영적으로 봉괴되는 과정과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설파한 다큐멘터리 영화 *How Should We Then Live*(1977)를 동일명의 책과 함께 제작하여 강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그는 점차 복음주의 사회개혁자, 즉 행동하는 복음주의자로 나섰다. 쉐퍼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 동기는 1973년 1월 22일 미국 대법원이 “어느 때든지 여자에게는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의 50개 주가 사실상 낙태금지법을 폐지하게 된 사건 때문이었다. 낙태를 장려하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쉐퍼는 물질과 우연의 궁극적 실재만을 주장하는 서구 인본주의가 낳은 인간 이성의 무서운 절망이요, 현대 복음주의의 좌절이라고 이해했다.⁶⁾

쉐퍼는 마지막 5년을 암과 투병하면서도 본격적 낙태반대운동에 나섰으며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1984)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불굴의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1984년 5월 15일 미네소타주 로체스터 5번지 그의 자택에서 복음주의자로서 위대한 생애를 마감하였다.

3. 「이성에서의 도피」가 말하는 주장들

「이성에서의 도피」는 쉐퍼의 첫 저작물이다.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변증을 다룬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1968년 출판된 책으로서 현대적 사고와 사상의 실체를 명료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집필 된 것이다.

특히 짧은 세대와의 대화에 깊은 간격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서구문화와 철학의 전반적 흐름을 쉐퍼다운 통찰로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문제성을 직시했으며 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하였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제1장 첫 줄에서 “오늘 날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가로놓인 틈은 거의 전적으로 진리개념의 변화 때문에 생겼다”⁷⁾고 전제한 쉐퍼의 핵심 메시지는 「이성에서의 도피」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그는 이 “진리개념의 변화”는 무엇이며 왜 일어났는가를 진술하게 말하려고 한 것이다.

1) 자연과 은총의 분리와 통일

쉐퍼는 현대인의 사상적 기원을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로부터 찾는다. 아퀴나스가 「자연과 은총」의 문제를 처음 논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은 세계의 상층부와 하층

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층부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인간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통일된 은총의 세계이고, 하층부는 피조물과 땅에 속한 모든 것, 인간의 육체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자연의 세계를 말한다. 아퀴나스의 이해를 단순하게 도식화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쉐퍼는 서로 통일되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 서구문화 전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도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퀴나스의 철학적 신학은 종전까지 상층부 개념만 주장한 중세적 신학을 깨뜨리고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퀴나스의 영향은 자연신학을 태동케 했고 곧바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발흥에 깊은 영향을 끼쳐 이른바 하층부의 세계가 독립적(Independent)이고 자율적(Autonomous)인 활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나 자연이 자율을 얻자 곧바로 은총의 세계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쉐퍼는 이것을 서구문화의 한 특징으로 이해했다. 은총을 자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은총의 지배를 지향한 중세적 입장이 뒤바뀌어 자연이 은총을 지배하려는 중상이 이미 르네상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과 은총을 몽땅 삼켜 버린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다른 가능성으로서 자연과 은총이 통일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자라나는 묵은 인본주의의 자율적인 인간으로 풀어 놓아주는 불완전한 타락을 말하는 아퀴나스의 신학에서 문제점이 짙었다”고 지적하는 쉐퍼는 “하나님만이 자율적이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적 노력은 두 가지 점에서 진리이다. 첫째 최종적인 권위라는 면에서 자율적인 것이란 없고, 둘째 구원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이 자율적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만을 외쳤다. 종교개혁은 은총과 자연을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킴으로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전인(全人)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는 은총과 자연을 분리시켰으며, 르네상스적 자율적 인간은 이원론에 빠

지게 되었고 현대적 유형의 인본주의와 그 비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⁸⁾

2) 절망선, 도약 그리고 신비주의

루소(Rousseau, 1712-1778)와 칸트(Kant, 1724-1804)에 이르러 아퀴나스의 자율사상은 충분히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견해 속에서는 이미 은총과 계시를 찾아볼 수 없다. 상층부는 은총대신에 자유가 차지해 버린 것이다. 이 시기에 자연이 전적으로 대두되자 결정론(Determinism)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결정론은 우주의 기계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마침내 제한이 없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해 온 자율적인 자유까지 속박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자율적인 자유(상층부)와 자율적인 기계(하층부)가 대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철학자들은 합리성과 합리주의를 통해 모든 삶과 모든 사상을 포괄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⁹⁾ 그러나 이들은 닫힌 체계(A Closed System)안에서의 자연원인의 제일성(齊一性)을 믿으므로 기계론에 빠지고 유물주의(Materialism)나 자연주의(Naturalism)의 새로운 세계관을 일으켰다. 이미 상층부에는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자연과 삶은 기계론적 개념으로 이해됨으로서 사드 백작(Sade, 1740-1814)의 새디즘과 같은 도덕의 폐기 현상까지 나타났다.

합리주의, 합리성, 그리고 통일된 지식의 영역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철학자들 가운데 헤겔(Hegel, 1770-1831)은 새로운 인식을 발견했다. 반정립(Antithesis)의 개념만으로 철학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립과 반정립의 종합(Antithesis)에 이르는 사고의 개념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 개념은 합리성을 회생시키고 합리주의를 고수케 함으로서 진리로서의 진리는 사라지고 “종합”이라는 상대주의(Relativism)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철학, 미술, 음악, 일반문화 그리고 신학에까지 미치며 인간의 절망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 절망이란 지식과 삶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바라던 희망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헤겔 이후, 키엘케고르는 자연과 보편자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신앙의 도약(Leap)을 시도한다. 그러나 결과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앗아간 것이다. 상층부와 하층부의 완전한 이분법(Dichotomy)만 있을 뿐이다.

키엘케고르를 기점으로 실존주의는 세속적 실존주의와 종교적 실존주의로 나뉘진다. 세속적 실존주의는 프랑스의 샤르트르와 카뮈, 스위스의 야스퍼스, 그리고 독일의 하이데거 등 크게 3흐름으로 분류된다. 샤르트르는 이른바 부조리(Absurd)의 철학을 주장했고, 야스퍼스는 한계체험(Final Experience)의 철학, 하이데거는 불안(Angst)의 철학을 말했는데, 이들은 고전철학과는 다른 일종의 반철학(Antiphilosophy)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합리성과 희망사이의 완전한 이분법을 인정할 뿐이다. 종교적 실존주의 현상은 세속적 실존주의와 동일한 양상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을 통해 나타났다. 그것은 칼 바르트(Karl Barth)의 사상과 그 연장선인 신신학으로 나타났다. 바르트는 “성경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고등비평(Higher Critical)의 이론을 지지했다. 이 논리에는 이성이 설자리를 잃고 겸증할 가능성 없이도 종교적 도약을 시도하려는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다. 이때 신앙은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상층부로 도약이 되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것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채 존재한다. 신신학에 이르러 하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 부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등의 용어는 비합리적 내포적 단어로만 쓰인다. 합리적으로 정의된 단어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사용된다.

알더스 혁슬리(Aldous Huxley)에게 와서 상층부를 위한 제일의 체험(A First-Order Experience)을 위해 그의 책 인본주의의 얼개(The Humanist Frame)에서 환각제 체험까지 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현상을 가리켜 티모시 리어리(Timothy Leary)는 “허구의 사회”라고 정의했다.

혁슬리는 “신은 없지만 그냥 신이 있다고 하자”는 주장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실존주의와 정의하는 철학(Defending Philosophy)은 반철학이 되었고, 참다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소설

가, 영화제작자, 재즈 음악가, 히피 그리고 심지어 폭력을 일삼는 청소년 쟁들에게 양도되었음을 흥미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외설을 위한 외설과 악물중독에의 탐닉 등의 사회현상은 이러한 철학적 절망, 즉 희망과 이성의 철저한 분리로부터 오는 종체적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상층부는 비합리적 신비주의가 범주 없는 무한대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하층부에는 합리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의 신은 하나의 대용물로서 상층부를 장식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대신학은 불가지론(Agnosticism)이며 무신론(Atheism)과 별다를 게 없다. 신죽음의 신학을 펼치는 반 뷔伦(Paul Van Buren)은 「복음의 세속적 의미」(The Secular Meaning Of The Gospel)에서 예수를 종교적 이미지의 내포적 단어로 사용되는 인본주의적 표현으로 상층부를 장식시켜 놓고 있다.

“예수”에 대한 진정한 정의는 배제된 채, 예수개념을 편리한 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라는 내용 없는 표상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것과 싸우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경의 내용과 동떨어진 “예수”란 말은 역사적인 예수, 재림하실 예수와는 다른 예수의 적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조는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¹⁰⁾

3) 이성과 신앙

쉐퍼는 신앙을 비성경적 방법으로 이성과 대치시킬 때 가져올 네 가지 결과를 지적했다. 첫째는 상층부 기독교와 일상생활 사이에 윤리적 불일치가 온다. 둘째는 법이 존재할 근거가 상실된다. 종교개혁의 전체 법체계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했음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는 악에 대한 답변마저 폐기한다. 기독교는 악에 대한 해답을 인간의 역사적, 시공간적, 실제적이고 완전한 타락에서 찾지만 아퀴나스 이후 현대사조는 이 사실을 거부한다. 넷째, 기독교를 상층부에 둔 결과, 현 시대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현대인이 절망해 버린, 삶의 전체에 대한 통일된 해답을 기독교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인간은 자기의 합리성을 상실했지만 검증과 논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것을 근거로 삶의 통일된 해답으로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성경관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맹목적인 권위, 즉 지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권위적 신앙관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교훈과 진리를 숙고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사상과 전혀 다르다. 성경도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자신에게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 주는 유일한 종교이며 철학체계이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갈등해 온 두 가지의 개념 혹은 두 가지의 사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합리적인 또는 인본주의적인 개념, 즉 다른 모든 사물과는 전연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시작할 때 인간은 궁극적인 진리로 향하는 교량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샤르트르의 부조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둘째 기독교의 개념이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비록 타락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이 비록 절망적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었으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고 가르친다. 성경은 실제와 무관한 사상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의 체계(System)는 시작이 있으며, 이 시작과 모순됨이 없이 전개된다. 성경은 모호한 체험도, 도약도 신비도 아니다.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지식과 인간의 전인격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 진리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복음에는 참되고 불변하는 사실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요즈음 복음주의가 현대인과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불변적인 것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상과 다를 게 없는 현상이다. 둘째, 복음을 전하려면 현대 사상의 조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적 사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떠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중산층 자녀들, 대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 이 문제는 심각하다.¹¹⁾

4. 쉐퍼의 주장에 대한 논쟁점

1) 지나친 단순화, 도식화의 위험

쉐퍼가 주장한 논리전개의 특징은 문제의 중심을 매우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제시한다는 점이다. 쉐퍼의 많은 저서 가운데 극히 초기저작인 「이성에서의 도피」는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일지라도 문제의 중심을 파악하고 나면 내용은 매우 간결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쉐퍼는 이러한 지적 통찰력이 남보다 탁월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쉐퍼는 성경 전체를 궤뚫는 독특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구의 사상과 그 사고방식의 전개를 성경적 틀 속에서 용해 해낸 그 능력은 감탄할 만 하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구조를 상층부와 하층부로 이분화하여 모든 사상적 전개를 이 틀 속에서 소화하려 하는 쉐퍼의 시도는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서양 철학사와 역사의 모든 흐름이 상층부/하층부의 사유구조 속에 포괄될 수 있다는 대담한 전제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 하는 점이다. 물론 쉐퍼는 형이상학적 영역과 형이하학적 영역이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도해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상의 다양한 전개를 하나의 틀 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 할 때, 아무리 그들이 전능하다고 해도 반드시 무리와 억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쉐퍼의 비판자들은 쉐퍼의 이러한 시도를 비학자적이고 비학문적이며 비논리적이라고 비난했던 점도 유의해 볼만하다.¹²⁾ 또한 쉐퍼 자신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 자신이 전문가가 아님을 전제할 때,¹³⁾ 위낙 논리의 이해와 전개방식이 까다로운 철학의 논제를 성경적 혹은 신학적 기준으로 제단하는 것이 인본주의 학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쉐퍼의 주장들은 철학이나 신학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근거가 부족한 비전문가적 견해에 불

과한 것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쉐퍼는 비록 전문적으로 학문하는 학자의 입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흐름을 깨뚫어 보고 현 시대의 문화현상과 현대인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안목으로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매우 독특한 시대적 인물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현대의 기독교 사상가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구약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는 엘리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쉐퍼의 동역자 「레인 테니스」(Lane T. Dennis)는 세속적 세상과 외롭게 투쟁해야 했던 알렉산더의 「아타니우스」에 쉐퍼를 비견하기도 한다.¹⁴⁾

어떻든 쉐퍼의 뛰어난 견해에도 불구하고 쉐퍼의 주장 속에 남겨진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 어쩌면 설명이 더 필요할지 모르는 생략된 견해들에 대해 계속적인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명」(The Civilization Of The Renaissance In Italy)에서 아콤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818~1897)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사이의 차이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자유가 북부에서는 종교개혁에 의해 남부에서는 르네상스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부에서는 자유가 방종으로 흘렀지만 북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는 르네상스 인본주의에서 사람들은 삶의 개별자들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방법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도덕에서 절대자를 얻을 곳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부에서는 종교개혁의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유를 누렸고, 동시에 설득력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되었다.¹⁵⁾

상기한 글은 쉐퍼의 대표적 서구문명 비판서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How Should We Then Live, 1973)에서 인용했다. 쉐퍼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한 주장은 부르크하르트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는 역사의 이 두 사건을 대조적이며 대립적 관계로 규정했다. 마치 악과 선이 대립하듯, 르네상스의 “인간과 자연의 추구”를 종교개혁의 “하나님

주권의 회복”이란 개념에 대립시킨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상기한 단순화와 도식화의 위험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문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간 인상을 준다.

르네상스가 고대문화와 문헌으로 돌아가자(Ad Fontes)는 인문주의적 열심을 보인 것은 결과적으로 북유럽에서 종교개혁운동의 토대인 “성경원전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을 이끌어 낸 계기가 되었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당시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였던 프로렌스, 베네치아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경건했던 사람이며, 르네상스의 예술가들 역시 그들 작품의 소재와 주제들을 살펴볼 때, 경건한 크리스천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가 인간과 자연만을 예찬하고 추구하려고 했다는 쉐퍼의 평가는 한쪽만 보고 다른 한쪽을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르네상스가 종교적 배경을 가졌으나 비종교적 사건으로서 특징지어져 있다는 점에 비해 종교개혁은 전적으로 기독교내의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사건의 개념과 전개를 대등한 기준에서 직접 대비할 수 있는 것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르네상스가 오히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으며, 인간과 자연을 대하는 사고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줌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한 위대한 영향을 종교개혁운동에 미쳤다는 사실로부터, 르네상스는 종교개혁에 대해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다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있다는 역사적 평가가 옳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의로서 [아놀드 하우저]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르네상스에 의한 자연의 발견이라는 말을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지어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이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종세와 비견하여 떠벌린 프로파간다적인 방어전략이라고 공격했다. 하우저의 주장대로라면 근대의 자유주의자들은 르네상스를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색칠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⁶⁾ 그렇다면 쉐퍼의 르네상스 이해 역시 자유주의자들의 선전적 주장에 놓간 당했던 말인가?

르네상스에 대한 평가와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적 이

해는 아직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다. 쉐퍼의 주장은 이러한 여러 견해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문제는 쉐퍼의 사상을 이해하는 기본조건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5. 맷는 말

쉐퍼는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오늘의 서구사상과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대다수 크리스천들의 다급한 요구에 대해 명료하게 답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의 자녀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향 - 기성인의 눈으로 볼 때 - 에 대해 무엇인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몰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인간의 사고 속에 내재된 비이성적 실체를 밝히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성경적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쉐퍼에게 감사치 않을 수 없다.

쉐퍼의 이 주장들이 결코 관념적 철학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실제에 근거한 매우 현실적인 것임을 우리는 그의 생애후기의 투쟁적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과 복음주의 내부의 봉괴 등에 대해 과감히 개혁적인 기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복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 쉐퍼에 대해, 어느 한 쪽 면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성에서의 도피」는 60년대 이후 열광주의적 성령운동에 의해 신비영역에 매몰되어 버린 한국기독교의 지적영역에 대해 보다 대중적 이해가 가능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해 준다. 나아가 서구적 문화를 토대로 한 고학력 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한국의 기독교를 향해 종교개혁적 합리성으로 새로운 지적 지평을 열어 줄 것을 기대하게 한다.

1. 본 논문의 Text는 「이성에서의 도피」(김영재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7)를 사용했다.
2. 쉐퍼는 그의 저서 「기독교 선언」과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에서 키이퍼가 말한 현대주의를 "인본주의, 자유주의 또는 세계정신"으로 지칭하며 이 자율적인 정신체계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등장했다고 말한다.
3. 프란시스 쉐퍼, 윤두현 역,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서울:생명의 말씀사, 1995), pp. 174-175.
4. 프란시스 쉐퍼, 권혁봉 역, 「진정한 영적 생활」(서울:생명의 말씀사, 1975) p. 7.
5. 엘리스 포터, 성인경 역, 「흔든시대의 확실성을 찾아서」(서울:일지각, 1996), pp. 200-203.
6. 에디드 쉐퍼, 박정관 역, 「리브리」(서울:홍성사, 1985), p. 18.
7. 프란시스 쉐퍼, 김진홍 역, 「기독교 선언」(서울:생명의 말씀, 1995), p. 45.
8. 프란시스 쉐퍼, 김기찬 역, 「거기 계시는 하나님」(서울:생명의 말씀, 1995), p. 11.
9. 프란시스 쉐퍼, 김영재 역, 「이성에서의 도피」(서울:생명의 말씀, 1970), pp. 15-35.
10. 쉐퍼는 서양철학의 중요한 원리로서 합리주의(Rationalism)와 합리성(Rational)을 언급하면서, 그 의미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합리주의는 전적으로 인간 자신을 바탕으로 한 사유 개념인 반면에, 합리성은 이성의 태당성에 근거한 사유개념으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합리주의는 끝까지 인간의 자율성, 독립성에 근거한 진리추구이며, 합리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생활하도록 준 반정립사고에 바탕을 둔 것이다.
11. Ibid, pp. 36-84.
12. Ibid, pp. 85-98.
13. 레인 데니스, 김선일 역, 「프란시스 쉐퍼, 그의 삶과 사역」(서울:아가페, 1994) pp. 136-137.
14. Ibid, p. 160., "나의 모든 대답들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쉐퍼의 고백은 학자적 정확성에 이르지 못한 비전문가적 견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15. Ibid, p. 33.
16. 프란시스 쉐퍼, 김기찬 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서울:생명의 말씀, 1984) p. 124.
17. 아놀드 하우저, 박낙정 역, 「문화과 예술의 사회사(근세편)」(서울:창작과 비평, 1984) p. 35.